

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5. 1. 23.(목) 11:00,
(지면) 2025. 1. 24.(금) 조간

배포 2025. 1. 23.(목) 06:00

2024년 방한 크루즈 관광객 81만 명 달성

- 2023년 27.3만 명 대비 약 3배 증가
- 2025년에는 해수부·문체부·기항도시 간 협력을 통해 109만 명 방문 예상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와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유인촌)는 1월 24일(금) 2024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81만 명, 입항한 크루즈선은 414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. 2023년 27만 3천 명, 203척과 비교하여 관광객은 약 3배, 입항 크루즈선은 약 2배 증가했으며, 같은 기간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약 1.1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크게 성장하였다.

* (제주) 10.1만명, 71척(2023년) → 64만명, 274척(2024년)

(부산) 15.0만명, 105척(2023년) → 15.2만명, 118척 등(2024년)

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·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4월 전략적 인사교류(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-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)를 실시하였다. 이를 계기로 지난해 6월 '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'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, 관광상품 고도화, 유치·홍보 강화, 제도 개선 등 4개 전략과제를 공동으로 이행하였다. 또한 기항지 관할 지자체, 항만공사, 관광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인 크루즈선 공동 유치를 추진하여 위와 같은 실적을 달성하였다.

2025년에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은 선석 사용 신청 기준으로 560척이며, 약 109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.

양 부처는 2025년에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협업을 계속한다. ▲연안크루즈 시범사업을 통한 국민 크루즈관광 활성화, ▲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, ▲기항지와 크루즈선 공동 유치 활동 및 ▲크루즈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방한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관광과	책임자	과 장	최재환 (044-200-5250)
		담당자	사무관	정가훈 (044-200-5277)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	책임자	과 장	서민정 (044-203-2851)
		담당자	사무관	이 슬 (044-203-2852)

